

과거로부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반성하는 지혜를 배우다

📖 **대담, 사진 및 정리: 김건주(본지 편집인)**

월간 월드뷰는 지난 6월 여름 입구, 광화문 근처 녹음이 짙은 야외 카페에서 최근 <권력과 신앙>(CKoBook)을 출간한 추태화 교수(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를 만났다.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라는 제목은 1981년 유학 초기부터 마음에 담아오던 숙제였습니다.

다. 신앙이 힘의 논리에 기댈 때 왜곡되거나 타락하게 되는 게 영성의 본질이니까요. 이 책은 나치즘의 중심에 서 있던 히틀러가 어떻게 기독교를 활용해서 정권을 잡았는지 직나라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중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오관(誤判)하여 나치의 허수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이기적인 민족주의가 어떻게 국민과 신앙을 오편의 미망으로 몰고 갔는지 자료를 토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 목표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도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안양대학교로부터 연구년을 받았습니니다.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라는 제목은 1981년 유학 초기부터 마음에 담아오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루터를 낳은 종교개혁의 나라, 괴테, 쉴러, 헤겔 같은 이상주의 정신을 세계 유산으로 남긴 교양과 문화의 나라가 오명(汚名)의 제국으로 돌변할 수 있었는가, 연구년에 그동안 모이온 자료를 정리하면서 집필하여 책으로 출간했는데, 역사적인 자료 사진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은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약간 보완하여 올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신이 있는 해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올해 대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각성의 기회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에 “장로 대통령” 운운하며 많은 교역자가 강단에서 정치상황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장로니까 짝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은 정치권력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1930년대의 독일 상황이, 1930년대 한국 상황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상황 사이에 유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1930년대는 독일과 한국에 상당한 유사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나치 치하에, 한국은 일제 식민지에 신음하고 있었지요. 독일은 서구 연합국으로부터 민족자존의 과제를, 한국은 일제로부터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대두하였지요. 그 가운데 기독교,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여러 갈래로 표출되는 것 또한 신기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나, 민족독재화를 앞세운 민족종교 운동이나, 2010년대 한국의 영적 상황과도 비교할 수 있는 점은 독일의 민족 종교적 경향이 전적으로 이단적 성향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편집, 왜곡하는 예도 있고, 토착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930년대 독일, 한국,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상황에 이 책은 실제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모두 영적 혼란기였다는 점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독일 제국기독교인(나치 추종 기독교인들의 공식 별명)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가 되게 하려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히틀러를 종교 수장에 앉히려는 이들도 있었지요. 마치 영국 헨리 8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나치 추종자인 제국기독교가 이단성에 무릎 꿇었다면, 한국 장로교는 1938년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우상숭배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두 교회에 모두 역사청산, 속죄가 숙제로 남아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과연 “광명의 천사”(고후 11:14)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이 공공연히 활보하는 시대에 누가 복음과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대두합니다. 독일은 “고백교회”에 소속된 성도와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던, 바보 같이 보였던 신앙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본회퍼, 니콜리, 쉬나이더 목사 같은 분들이 계셨지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생각했으면 좋았으면 혹은 행동했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에서 암시해 드렸듯이, 역사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역사는 실제로 현재에도 의미와 힘을 가집니다. 역사 속에서 의미를 만나 는 이들에게 역사는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 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가르치신다는 점을 간파해신 안 됩니다. 역사적 상상력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승화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독일 교회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 시사 하는 비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구역과 신약의 구체적인 재현이라 불릴만합니다. 현재를 비유적으로 사도행전 29장 후 30장으로 부르듯, 당시 독일 교회는 성경이 예언하는 종말론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고, 나치는 영적으로 변질한 좀비로서 의롭게 살려 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나치당은 사탄의 제국, 바빌론의 상징으로 군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시는 종말의 세계를 영화처럼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시대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온갖 종교가 시장에 나와서 현란한 구원의 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히 종교산업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현대의 종교는 인간 구원에 최종적 관심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종교는 영적 상공을 만들어 파는 장사치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본회퍼 목사는 “값싼 은혜”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답은 바로 고백교회가 고백한 신앙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른 복음”(갈 1:6-9)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골 1:24)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정치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문화, 교육)에 비해 활동이 저조한 편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견해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화, 복음의 정치화, 교인들의 정치 세력화를 철저히하게 되어서야 합니다. 특히 교인들이 정치 세력 과 결합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진도, 신교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은 비기독교적 입니다. 민족 복음화는 정치로 실현될 성질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민족주의를 잘못 수용하여 결합할 때 기적적 민족주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치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치 시대의 제국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오만했습니다. 제 책을 통해 대답한다면 복음으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정신으로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권력은 정치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고, 정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잠시 맡아 선한 일에 활용할 임무를 맡은 정치인이라는 정신, 그것이 요구됩니다. 교인들은 선한 일에 참여할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들이지요, 시대가 그러지 못할 때 교인들은 고난에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치주의자들은 각종 게르만-아리안 신화, 북구(北歐)의 전설,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제국주의, 생물학적 우생론, 신학 이론 등을 들어 기독교인의 혼을 혼란케 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혼들어놓았지요. 이로써 기독교 세계관이 혼탁해졌고 결국 신앙이 능력을 잃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고백교회가 시대를 끌어안으면서 고백한 바른 신앙신앙은 한마디로 “말씀으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혼란이 다름 아닌 말씀 사이에 둔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나치는 성경을 왜곡하면서 교회와 교인을 분열에 빠뜨렸습니다. 고백교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우선적 행동은 말씀의 복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케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드러나도록 애썼습니다. 인간의 삶과 사회의 질서, 진실은 여기서부터 생수한다고 본 것이지요.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밑바탕에는 성경이 기초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육성을 왜곡되지 않게 진리의 길을 평탄케 하는 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가치, 의미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진리를 드러내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권력과 신앙〉에 관한 토문을 참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www.ckbooks.com



추태화, 인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학 석사,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Ph. D.).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성의 시명으로 읽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롭기를 꿈꾸는 기독교 문화운동가이다.